

전남형 장애아동 공공재활의료 서비스 첫발 디뎠다

넥슨 공공재활의료센터 개원
목포중앙병원에 122억 투입
조기 진단·집중 치료 등 병행

장애아동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돋는 전남형 공공재활의료 서비스가 첫 발을 내디뎠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목포중앙병원에서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중앙병원이 주관한 개원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원이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의료계, 사회복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어린이재활센터로 희망, 회복, 성장으로 함께 가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개원식은 소림학교 학생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센터 건립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비전선포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기부한 넥슨재단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려 민관이 함께 만들어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더했다.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집중재활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 전문기관이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전남의 첫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다.
총사업비 122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건립됐다.

언어·작업·물리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20병상 규모의 낮 병동 등 최첨단 재활시설을 갖췄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치료사 14명 등 총 17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지난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재활치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아동 36명이 386건의 진료를 받는 등 지역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이 지역 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 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권역별 의료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광선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장은 "센터는 오랜 기간 도민과 지역사회와의 염원이 모여 완성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과 성장을 돋는 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재활치료를 위해 먼 길을 오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장애아동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남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순천의료원에 28억원



OK! 지금은 전남시대, 도민의 안전지킴이!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 주최/후원 : 전라남도소방본부 · 의용소방대연합회 / 담양군

전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담양군 추성경기장에서 열린 '제42회 전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박원종 도의원 "전남교육청, 수은 기자재 관리 부실"

8억원 투입해 전수처리 불구

1300점 발견... "시스템 구축"

전남도교육청의 수은 기자재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4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간 수은 기자재 관리 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2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학교의 액상 수은과 수은 함유 기자재를 전수조사하고 모두



수거·폐기했다"

고운을 끝으로 "올해 다시 1,300점이 추가로 발견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의 기본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8억원을 투입해 수은 처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거가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전남교육청·지역청·학교 간 물품 관리 네트워크가 전혀 작동하지

정근산 기자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수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육청이 신속히 전수조사와 폐기 조치를 추진해 준 점은 높이 평가 한다"면서도 "이제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물품 관리가 누락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조사 당시 일부 학교의 수은 기자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후 과학실무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조사에서 1,300점이 새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정근산 기자

'음주운전 징계' 전남교육청 교원·일반직 1년간 21명

김재철 도의원 "기강 확립"

최근 1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남지역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이 21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종합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



원은 총 78명이다.

징계 처분별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25명, 감봉·경계 29명, 불문경고 24명이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14명, 일반직 공무원은 7명으로 모두 21명에 달한다.

정근산 기자

정다은 시의원 "광주, 무장애 건축물 0.3% 불과"

"민간참여 등 지원책 필요"

광주지역 내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이 전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건축물을 전체 건축물 14만 3,595동 중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지역 등록장애인은 6만 8,595명(지체·뇌병변 3만 3944명), 노인 인구는 25만 7,902명(전체 18.46%)에 달한다.



반면, BF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고,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 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나 일반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공간의 접근성은 부족하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FUNIS

2 - 3F 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PARK GOLF PARK
서비스 스크린골프 12홀과 부대시설

2F 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PARK GOLF PARK
서비스 스크린골프 11홀과 부대시설

1F 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세단론 공간

B1 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인승 규모의 대형 볼링장

Floor Plan
2 - 3F Screen Golf
1F Fun it, us Cafe & Lounge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리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등학교 옆

